

[순모임 교재 - The Sent 365]

GOS  
12월 셋째주

말씀 앞에 선 하늘 백성

욥기 38:1-18

■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 200장, 구 235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욥에게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발판입니다.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1-3절).

- 1)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2절)?
- 2)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3절)?

**나눔1**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4-18절).

- 1)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4-11절)?
- 2) 욥이 감히 엄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12-15절)?
- 3)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16-18절)?

**나눔2**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3**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섭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삼 | 하나님 앞에서 제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 |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